평택시, 베트남과 문화교류 확대 추진

정장선시장, 3박5일 일정 현지방문

정장선 평택시장(사진)이 베트남과의 사회 문화 분야 교류 확대와 경제 통상을 위해 꽝남성 땀끼시 등 방문에 나섰다.

평택시는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와 트어티엔후에성 후에시와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의를 위해 방문단을 꾸려 15~19일까지 3박5일간의 일정으로 공식 방문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땀끼시의 공식초청으로 이뤄졌다.

방문단은 정장선 시장과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 이윤하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10여명으로 꾸려졌다.

방문단은 땀끼시 인민회의 의장인 응우엔 반 투아 당서기장과 후에시 응우옌반탄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도시간 우호교류 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땀탄 산업단지 내 기업체와 후에항구 개발현장 등을 둘러보고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투자 여건 등도 살핀다. 또한 평택시 소재 기업체가 베트남 진출 시 신속한 행정처리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평택=이보헌 기자 bhlee7777@

정부, 지리산 양민학살 희생자 외면

1951년 한국전쟁기간 산청군 외공리 지리산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총으로 집단 학살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잔혹한 학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데 정부의 진상규명 활동도 중단된 상태여서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매년 봄이면 지리산 외공리의 외딴 골짜기 추모제를 통해서 그 날의 모든 비극을 겪은 고인들의 넋을 기리며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곳 추모제는 대책위원회와 뜻있는 학생, 주민들이 함께 작게 열고 있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참여도 하지 않고 추모탑도 건립하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외공리 골짜기에서 280여 구의 유해와 카빈소총의 탄피, 탄두를 발굴했지만 정부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사건의 전모는 규명하지 못했다. 그나마 학살지는 대책위의 땅 한 평 사기 운동으로 보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열하는 유족.

정구창 행정안전부 과거사업무관련 지원단장은 16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많다"면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재개되려면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진상규명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남=이경화 기자 7470002@

평택시, 수소차 1대당 3500만원 지원

평택시는 17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평택시는 도 확보 물량 200대의 50%인 수소연료전지차 1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구매보조금은 1대당 총 3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평택시는 친환경 교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이외에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천연가스버스 교체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평택=이보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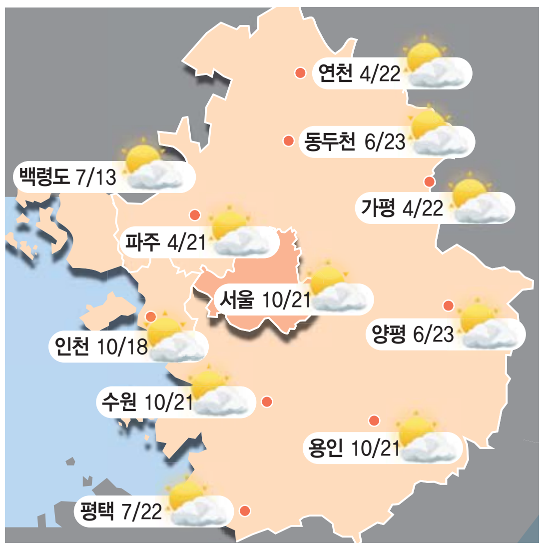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56 | 해짐 / 19:09

4월 17일 (水)
음력 : 3월 13일

수도권 날씨 10~21℃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북 새만금에 4차 산업혁명 연계

전기차·자율차 산업기지 조성

도로교통공단 등 4개 관과 MOU
이달말 자율차 테스트베드 준공

새만금이 전북 지역의 자동차산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전기차·자율차 중심의 미래 산업기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새만금 전기·자율 미래차 메카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조만승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류도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자동차 산업이 전기·자율차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6개 관계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데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중소·벤처기업을 꾸준히 육성해온 중진공의 역량이 더해지고, 자율주행 분야 최고 공공기관이 연구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새만금에 전기·자율차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시너지(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베드(시험대) 구축을 통해 새만금 지역을 첨단 교통수단의 실증단지로 조성하고, 미래 스마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테스트베드는 4월 말 준공을 앞둔 새만금 주행시험장(군산시 옥구읍 소재)을 1단계로, 2단계 새만금 방조제 하부 수변도로 구간, 3단계 새만금 사업지역 내 실 도로 구간 등에 차례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내년부터 새만금산단에 상용차 군집·자율주행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코랩(Co-Lab)센터 및 테크비즈센터를 조성하고, 투자혜택 등 정책지원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전기·자율 미래차의 고도화된 라이더센서, 완성차 등의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와 입주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기업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새만금 등 전북지역 고용창출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을 통해 각종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테스트베드의 전반적인 설계와 기술공유를 지원하고, 새만금 지역의 고정밀 지도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등의 협력을 통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새만금은 자율주행을 위한 단계별 테스트베드 구축은 물론, 관련 자동차 기업들을 클러스터화하여 전북의 핵심 주력 자동차산업을 되살리는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지역이 미래차 전진기지로서 각종 연구와 시험,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했다."라면서, "6개 관계기관이 역량을 모아 새만금을 국내 최고의 전기·자율차 메카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앞으로 전북도는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연구개발(R&D)과 자율군집주행 실증시험(Test-bed)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도내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것이며, 새만금 지역에 자동차 관련기업 집적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로 선순환 되도록 지원하여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전북=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완도 항동마을에 '해바라기 밭' 만든다

사업비 3.4억 투입 공고지 정리
가을빛 여행축제 맞춰 조성키로

완도군은 항동마을 공고지에 다가올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 축제에 맞춰 해바라기 밭 조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해바라기 밭 조성 사업은 2018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완도읍 항동마을의 '완도 청정바다가 품은 꽃밭, 공고지 발전소'가 선정되어 총 3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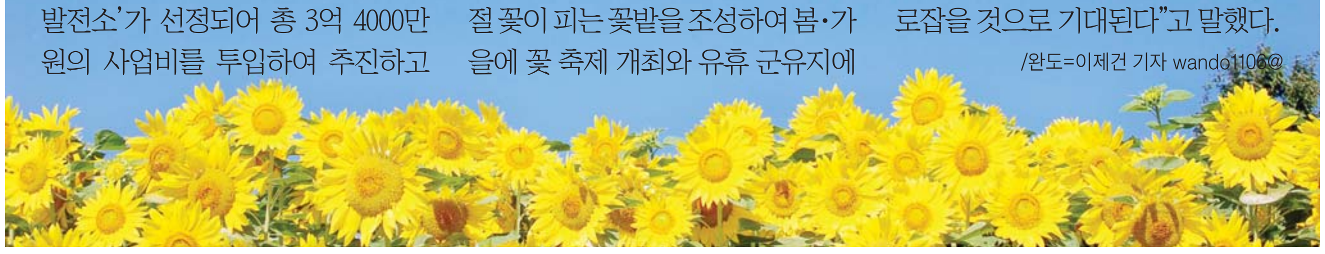
소규모 도시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도시 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완도 항동마을 공고지는 토지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아 방치되면서 수십 년에 걸쳐 쓰레기만 쌓여있었는데 주민들이 팔을 걷어 해바라기 꽃을 조성하여 꽃이 피는 공고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고자 한다.

아울러 가을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꽃이 피는 꽃밭을 조성하여 봄·가을에 꽃 축제 개최와 유휴 군유지에 카페와 특산품 판매장 신축하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항동마을 주민협의체인 마을기업 대표 서경의(항동리장)는 "앞으로 계절에 맞는 꽃밭을 조성하여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다도해일출공원 관문인 항동마을 공고지의 해바라기 밭이 가을빛 여행축제의 때 열리는 일출공원의 국화 전시와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도=이제건 기자 wando1108@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배 꽃가루 은행' 운영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배꽃 개화기를 앞두고 과수종합관리실(배꽃가루은행)을 4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다. 과수종합관리실은지난해 배재배농가들이 저장했던 꽃가루와 올해 생산한 꽃가루의 발아율과 활력을 검사해, 적기 인공수분에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는 곳으로 많은 배 재배농가들이 이용하고 있다. /안성=이보헌 기자

광주시, 고액 상습체납자 내달 가택수색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이 단행된다.

광주광역시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중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4월 실태조사를 거쳐 5월 중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명품시계 등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광주시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상황, 거주실태를 조사해 대형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확인된 고가·사치성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운반이 어려운 압류물품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광주=봉채영 기자